

‘서울사랑상품권’ 1500억 추가 발행... 최대 15% 혜택

서울시, 내달 4일부터 순차 공급
중동사태에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월 구매한도·보유한도 상향 조정
민간플랫폼·금융기관과 추가 지원도

서울시는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할인·페이백·쿠폰 혜택을 결합해 시민의 소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5월 4일(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원을 시작으로, 5월 11일에는 ‘서울배달+ 뽕겨요’와 ‘e서울사랑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500억원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추가 발행은 온라인 사용처 확대, 할인과 페이백 결합 혜택 강화, 구매 한도 상향 등을 통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상품권별 주요 정책〉

구분	오프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시	5월 4일(월) 12시	5월 11일(월) 10시
발행액	1000억원	500억원
할인율	5% 선할인 + 2% 페이백	10% 선할인 + 5% 페이백
사용처	서울시 관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서울배달플러스 뽕겨요 e서울사랑샵
구매한도	월보유한도 50만원 총보유한도 150만원	월보유한도 30만원 총보유한도 100만원
유효기간	구매일로부터 5년	구매일로부터 1년
신용카드 구매 시	환불 및 선물하기 불가	
네이버페이 이벤트	5월 중 상품권 구매시 적용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포함)	
발행일 2부제 판매	생년 끝자리 적용 구분 출수: 12시~14시, 짝수 15~17시	미적용

/서울시

기존 자치구별 배달전용상품권과 달리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해,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뽕겨요’와 우체국쇼핑 내 서울 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 할인에 더해 페이백을 추

가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확대한다. 서울시내 48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5% 선할인에 더해 결제 시 2% 페이백을 제공한다.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0% 선할인에 5% 페이백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효과를 크게 높였다.

이번 페이백은 5월 4일 이후 결제 건

부터 적용되며(온라인 상품권은 5월 11일 이후), 결제 다음 달 20일에 페이백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선할인과 페이백을 합산하면 최소 7%에서 최대 15%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페이백 혜택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 이벤트가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2022년 이후 발행되어 현재 보유 중인 오프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도 동일한 조건으로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민 구매 편의도 확대된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보유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다 여유롭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는 민간 플랫폼·금융기관과 협력해 할인·적립·쿠폰 혜택을 결합한 추가 지원을 마련,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비 혜택을 한층 더 높인다.

5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로 서울사랑상품권을 1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1000원을 엔페이(Npay) 포인트로 적립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포인트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네이버페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된다.

신한은행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울배달+뽕겨요’에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 원 이상 결제 시 5천 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한편, 상품권별 유효기간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1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원활한 이용을 위해 사전에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결제수단(계좌·카드)을 미리 등록해 둘 것을 권장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대학교육협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전년비 14.7만원 ↑... 130개교 인상

올해 4년제 대학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7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올해는 총 403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4월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사

회보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에 대해 공시한다.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2개교,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정보공시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4년제의 경우 2026학년도 등록금은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인상했으며, 62개교(32.3%)는 동결했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27만원으로 전년 712만원 대비 14만 7000원(2.1%)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립은 823만원, 국공립은 425만원이었으며, 수도권은 827만원, 비수도권은 662만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3만원, 예체능 834만원, 공학 768만원, 자연과학 732만원, 인문사회 643만원 순이다.

전문대의 경우 125개교 중 102개교(81.6%)가 인상했으며, 23개교(18.4%)는 동결했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65만원으로 전년(648만원) 대비 17만원(2.7%) 올랐다.

사립은 669만원, 공립은 223만원이었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708만원, 비수도권은 629만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3만원, 공학 679만원, 자연과학 672만원, 인문사회 59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경기도기술학교 북부캠퍼스’ 유치

오는 6~7월 중 정식 개소 목표
전기·냉난방·AI 교육 과정 운영

고양시가 경기 북부 지역의 직업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핵심 거점 확보에 성공했다. 시는 ‘경기도기술학교 북부캠퍼스’ 유치가 최종 선정되며 지역맞춤형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공공 직업훈련기관인 경기도기술학교는 그동안 화성시에 위치해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교육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재단은 북부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 북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고양시가 최종 대상지로 낙점됐다.

북부캠퍼스는 덕양구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9층에 약 250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5월 중 교육시설 조성 공사에 착수해 오는 6~7월 정식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개소 이후에는 전기설비 시공관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AI 기반 소프트웨어 자동화 등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시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퍼스 유치를 통해 고양시는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지역 내 고용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설 조성으로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고, 올 하반기 약 80명의 교육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숲에 16년 역사 ‘경기도 교류정원’ 조성

내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서울시와 첫 상생협력 성과 공개

경기도가 16년간 축적한 정원문화를 서울 도심에서 선보인다.

경기도는 오는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서울시와의 첫 상생 협력 성과인 ‘경기도 교류정원’을 조성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정원은 양 기관이 지난 1월 체결한 ‘우호 교류정원 조성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서로의 정원박람회에 상대 도시의 정원을 교차 조성해 행정 경계를 넘어서 정원문화 확



경기도 교류정원. /경기도

산에 뜻을 모았다.

서울숲 일원에 조성된 경기도 교류정원의 대표 작품은 ‘30.5m의 수평선’이다. 이 작품은 경기도 정원박람회의 16년 역사와 서울숲의 공간적 상징성을 결

합해 길이 30.5m의 선형 구조물로 구현됐다. 송재안, 김건우 작가가 참여했으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조성 전반을 맡았다.

교류정원은 박람회 개막일인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180일간 운영된다. 서울숲을 찾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도 오는 10월 양평 세미원·두물머리에서 열리는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교류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이번 교류정원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함께 만든 정원문화 협력의 첫 결실”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해돋이 / 05:38 | 해질 / 19:21

오늘의 날씨

4월

30

일(木)
음력 : 3월 14일

수도권 날씨

9 ~ 22°C

- 운동 지수 ■■■■■■■■■■
- 빨래 지수 ■■■■■■■■■■
- 세차 지수 ■■■■■■■■■■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연준, 금리 동결 유력...파월 퇴임 후에도 ‘인하 시계’ 늦춰지나
▲트럼프, “봉쇄로 이란 붕괴상태” 주장...美 내부 서도 갑론을박

/사진 뉴스시스

▲트럼프 지지율 34%로 최저 수준...이란전·물가 부담에 민심 이탈
▲이란 내부 충돌 격화...핵 협상 놓고 강경파·온건파 파워게임

▲日 히키코모리, 청년만의 문제 아니었다...평균 37세·가족도 고통
▲대만 증시, 캐나다 제치고 세계 6위...AI·반도체 랠리 영향